

“학생 피해없게” 강행... “교장권한 침해” 반발

광주교육청·자사고, 전형요강 교육감 직권 공고 논란... 교육부 당혹 “법리검토 하겠다”

송원·송덕고 오늘 승인 시한

광주시교육청이 검토 중인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송원고와 송덕고의 신입생 전형요강을 교육감이 직권으로 공고(광주일보 12일자 6면 보도)하는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청은 자사고 입학에 원하는 신입생을 위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자사고 측은 교장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법적 근거가 없어 가능한 지 파악 중이라며 당혹해 했다.

1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송원고와 송덕고가 13일까지 신입생 모집 전형 요강을 제출하지 않으면 교육감 직권으로 전형요강을 공고하기로 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두 학교가 전

형요강을 제출하지 않으면 자사고 입학을 원하는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직권 공고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송원고와 송덕고가 신입생 모집 요강을 제출하지 않으면 자사고 신입생 모집 공고일인 14일 교육청이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자사고 측은 “법적 근거도 없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자사고 신입생 모집 전형 요강은 학교장이 정하도록 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교육감이 발표한 것은 법과 절차를 무시한 행위라는 입장이다.

송원고의 한 관계자는 “자기를 뜻에 맞지 않는다고 법과 규정 어디에도 없는 행위를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 교육감이 할 행동이다”며 “교육기관의 처사가 답답하

기만 할 뿐이다”고 밝혔다.

송덕고도 “교육부도 학생 선발권을 학교에 주도하고 있는데 교육청이 막무가내로 이를 막고 있다”며 “교장 권한을 침해하고 법에도 없는 직권공고를 하면 그 행정행위를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반발했다.

광주시교육청도 직권 공고가 규정과 절차에 없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지만, 불가능하지도 않다고 맞서고 있다.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이런 전례가 없었으니 당연히 규정이 없는 것 아니냐”며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직권 공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당혹스럽다”며 “조건부 재지정이나 전형요강 직권 공고와 같은 행정행위는 전례가 없고 법적으로도 근거가 없다”며 “양측 주장의 법

리적인 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에서는 학교장이 하고 교육감이 승인하게 돼 있다”며 “이는 어느 한 주체가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양 기관이 협의를 통해 공고하라는 의미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사고인 송원고는 신입생 전형요강 수정안을 13일 교육청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송원고는 성적 제한을 폐지하라는 교육청의 요구를 거부하고 성적 상위 30%에서 50%로 완화해 제출했으나 반려됐다. 반면, 송덕고는 자기주도(면접) 전형요강을 수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덕고는 1단계로 성적 제한 없이 정원의 150%를 모집한 뒤, 2단계로 면접(20점)과 내신(180점)을 통해 선발한다는 내용을 제출했다가 반려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교장·동료교사 폭행 ‘물의’

광주 경영고 교사 전보조치

시교육청, “개학전 마무리 예정”

광주시교육청은 12일 교장과 동료 여교사를 폭행하고, 학교에서 카드놀이를 해 물의를 빚은 광주 경영고 A교사를 개학 전 전보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교사는 최근 정직 3개월의 징계가 끝난 상태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현재 근무 학교에 A교사가 계속 근무할 수는 없다고 보고 2학기 개학 전 전보 조치하기로 했다.

A교사는 맡고 있는 과목 특성상 다른 학교로 옮기기가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이 해당 과목의 순회수업 등을

하는 학교에 A교사를 보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A교사가 다른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도 가지고 있어 전보하는 데 문제는 없다”며 “여름방학 끝나기 전 전보조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전보조치에서 A교사와 함께 교내에서 카드놀이를 한 사실이 적발돼 견책을 받았던 다른 교사들은 제외됐다.

이들에 대해서는 정기 인사시 전보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태극기가 ‘주렁주렁’

광복절을 사흘 앞둔 12일 광주시 북구 중흥2동주민센터 쉼터에서 열린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행사에 참가한 지역 어린이집 원생 등 50명이 태극기 널줄 아래에서 미니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이번 행사는 중흥2동주민센터 주최로 열렸다.

광복절을 사흘 앞둔 12일 광주시 북구 중흥2동주민센터 쉼터에서 열린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행사에 참가한 지역 어린이집 원생 등 50명이 태극기 널줄 아래에서 미니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이번 행사는 중흥2동주민센터 주최로 열렸다.

모텔서 낳은 아이 버리고 도주 20대 미혼모 검거

모텔 욕실에서 혼자 아이를 낳은 20대 미혼모가 아이를 방치하고 모텔을 빠져나와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숨진 채 욕실 휴지통에서 발견된 여자아이는 사인을 밝히려는 경찰에 의해 부검에 들어갈 예정이다.

광주서부경찰은 12일 자신이 낳은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이모(25)씨를 영아살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쯤 광주시 서구 삼촌동의 한 모텔에 투숙했던 이씨는 욕실에서 새

벽 4시계 출산한 뒤 오후 12시30분께 아이를 버려둔 채 모텔을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모텔 주인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모텔 주변 CCTV를 확인해 오후 2시께 모텔에서 20m 가량 떨어진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이씨를 붙잡았다.

지난해 초 고향집을 떠나와 홀로 광주의 모텔과 PC방을 전전하던 이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관계를 통해 아이를 갖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50 몰림 20:56
해질 19:24 달림 08:29

선선한 아침- 밤부터 비
점차 흐려져 늦은 밤부터 비가 시작되었다. 예상 강우량 1~5mm.

◇지역별 날씨 (℃)

광주	21/28	보성	20/27
목포	21/26	순천	22/29
여수	23/27	영광	21/27
나주	19/28	진도	21/27
완도	21/27	전주	21/28
구례	21/29	군산	21/26
강진	20/27	남원	20/27
해남	20/28	속산도	21/24
장성	19/27		

◇바다 날씨

방향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바다	북~북동 0.5~0.5	북~북동 0.5~0.5	
남해	남바다	북~북동 0.5~0.5	북~북동 0.5~0.5	
서부	남바다	북~북동 0.5~0.5	북~북동 0.5~0.5	

◇생활지수

식중독	47
운동	40
빨래	40

◇주간 날씨

날짜	14(목)	15(금)	16(토)	17(일)	18(월)	19(화)	20(수)
날씨	☁	☁	☁	☁	☁	☁	☁
기온	21/25	22/27	23/29	23/27	23/26	23/26	23/28

정부, 광복절 독립유공자 192명 포상

광주시 15일 기념행사

국가보훈처는 제69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세 번의 투옥 끝에 옥중 순국한 송중직 선생 등 독립유공자 192명을 포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포상되는 독립유공자 중에는 작년 6월 주일 한국대사관 이전 과정에서 발견된 '3·1운동 피살자 명부'에 등재된 30명도 포함됐다.

포상 유형을 보면 독립장(3명), 애국장(87명), 애족장(71명) 등 건국훈장 161명과 건국포장 17명, 대통령표창 14명이다. 포상자 중 생존자는 없으며, 여성이 4명이다.

훈·포장과 대통령표창은 오는 15일 열리는 광복절 기념식 때 유족에게 수여된다.

이번 포상자 중 보훈처가 일제의 행위기록(行刑記録)과 정보문서, 신문기사 등 각종 문헌자료를 분석하고 현지 조사를 실시해 자체 발굴, 포상하게 된 독립유공자는 182명이다.

이와 함께 제69주년 광복절을 기념하

는 다채로운 행사가 광주에서 펼쳐진다.

광주시는 15일 오전 10시 윤장현 시장, 애국지사, 독립유공자, 광복회원, 시민·학생, 각급 기관·단체장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광복절 경축행사를 개최한다.

경축식장에서는 독립유공자 고 최병직 선생에게 애국장 훈장이 추서된다. 최 선생은 1919년 중국 길림성 연길현에서 대한군부에 가입해 통신원으로 활동하고, 1920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통신원과 모집원으로 군수품을 구입하다 체포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옥고 중 순국했다.

광주시는 이번 제69주년 광복절을 맞아 나라사랑 정신을 높이기 위해 시내 주요 노선에 가로등을 계양하고, 전 가정 태극기 달기 운동을 펼친다.

또 애국지사와 유가족에게 우치동물원, 민속박물관 무료 개방과 시내버스 및 지하철 무료승차 등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24면 증면 발행·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가격부담을 속 시원하게 덜어드립니다!!

대한보청기

맞춤 렌탈

수백만 원짜리 보청기, 한달 3~4만원으로 가능합니다!!

- 첫째, 한달 3~4만원!!
- 둘째, 전부 무료
- 셋째, 맞춤 귀속형

고가의 보청기를 가격 부담 줄여 사용
수백만 원짜리 고급·고가 보청기를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무료 A/S, 무료 배터리, 무료 청력검사, 무료 테스트, 무료 맞춤 상담...
평생 1회 가입비 이외 더 이상 아무 비용이 들어갈 일 없습니다.

대한보청기의 믿을 수 있는 제품과 기술
개인 청력에 딱 맞게 아주 속 시원히 대화 TV 전화 등 다양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광주직영센터 062)430-8900 전주직영센터 063)251-4999

대한보청기 전국 직영 센터

◆강안본사 02)2248-5600 ◆종로본점 02)743-8100 ◆강남본점 02)542-8500 ◆송파·잠실본점 02)420-2090 ◆영등포본점 02)2637-2800 ◆관악본점 02)3285-7600 ◆여의도본점 02)761-8883 ◆인천(부평)본점 032)516-2200 ◆분당본점 031)707-5787 ◆일산본점 031)917-1100 ◆의정부본점 031)840-2001 ◆구리본점 031)551-1310 ◆안산·시흥본점 031)407-2999 ◆천안·아산본점 041)545-2006 ◆청주직영점 043)225-2900 ◆대전본점 042)486-9944 ◆대구본점 053)253-4400 ◆대구서부본점 053)657-3700 ◆대구북구(칠곡)본점 053)311-7900 ◆포항본점 054)231-8070 ◆강원(원주)본점 033)731-2114 ◆부산지사본점 051)819-0038 ◆울산본점 052)256-9050 ◆(경남)창원본점 055)222-3050 ◆전북(전주)본점 063)251-4999 ◆광주·전남본점 062)430-8900